

2023년 4월 8-9일 주말 예배
부활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 .

요한복음 20장 27-28절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인본주의적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사실을 아는 것이요, 인본주의적 신앙은 사실을 통해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거를 대” “내 눈에 보여줘 봐, 그러면 믿지!”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11장에 보니까,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로 증명된 것을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믿음이 복된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호천 장로님의 장례식을 거행할 때의 일입니다.

날이 너무 푸르려서, 따스한 햇볕이 밝게 무덤을 비춰서 더욱 슬픈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고 있는 장로님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을 아는 많은 성도들이 슬프게 울고 있을 때, 장로님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밝게 웃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문 밖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죽으면 밝고 환한 꽃을 놓아 줘! 기쁜 날 화려한 꽃에 싸여 있고 싶어!”

이거 뭐, 비장하고 슬픈 얘기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죽음을 본다는 것이죠.

부활을 어떻게 믿죠?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마였습니다.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상처에 손을 대도록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정황을 설명하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삶을 살 때에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경계는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부활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기는 하셨으나 실제로 부활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2천 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4-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며, 부활을 왜 부인할 수 없는지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을 증명함으로써 믿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니까요.

역사적 예수님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 문서인 빌라도의 보고서나 당시의 문헌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과연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짜로 기절할 수 있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동안 채찍에 맞으셨지요. 그 채찍은 Flagrum이라 불렀는데, 가죽 끝에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뼈와 납 조각을 붙여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을 뜯어냅니다.

여러 번 내리치게 되면 피부 밑에 근육까지 뜯어지게 되고 피부 조직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져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는 약 50kg 정도로 추정하는데,

거의 빈사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2023 성지순례 성지 박물관에서, 당시 십자가형을 보여주는 그림과 발견된 뼈 조각의 사진)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사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인간의 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몸을 지탱하고 있던 양 팔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점차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고 결국은 숨을 못 쉬게 되므로 십자가상에서 질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부리고 있던 다리를 위로 밀어 올려 주면 막힌 숨을 내뿜어 잠시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어 주게 되면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34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곁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숨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죽음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쉬 맥도웰이 쓴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증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블린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사무엘 호오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상처 난 곳에서 피만 나왔다면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와 함께 물이 나오는 현상은 이미 십자가 상에서 심장 파열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마가복음 15장 37절,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네 명의 기자는 동일하게 예수님은 운명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막 15: 44-45).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인 필요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위한 충분조건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쉬 맥도웰의 책 [부활의 증거]에 나오는 7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마태복음 27장 66절의 돌무덤 인봉이 끊어진 사실입니다.

명령이 없이 함부로 이 인봉을 뜯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 하는데 누가 겁도 없이 이 인봉을 뜯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간 상황이었는데요.

2)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척에 둔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증거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덤이 비지 않았다면 곧 거짓이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즉 속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3)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의 무게가 약 1360-1800kg이었다고 합니다.

철통같이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서 이런 무게의 돌을 들키지 않게 옮기고 시신을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4) 로마 병정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도망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5)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면 과연 옷을 벗기고,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채 할 수 있었을까요?

6)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8절을 보세요. 게다가 요한복음 20장 24-29절 에서는 직접 손으로 상처를 만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도 증명되어 있지요.

7) 예수님의 부활이 여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목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만일 부활의 사건이 날조된 것이라면 복음서 기자들이 여자들의 증언을 삭제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죽음을 이긴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죄를 떼어 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어 살아가야 하는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이 된다는 것,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야. . .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나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인정이고 시인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아시지요.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아줌마가 말하는 앵무새가 있는 한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그 아줌마 진짜 똥똥하네.”

아줌마는 화가 났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나가는 데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줌마 진짜 똥똥하네.”

화간 난 아줌마는 가게 주인을 찾아가 앵무새 교육을 잘 시키라고 화를 냈습니다.

다음날 아줌마가 지나가는데, 어찌 된 일인지 앵무새가 조용합니다.

앵무새는 아줌마를 약 올리지 않고 불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쳐다보자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알지?”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한번 우리의 죄에 이 이야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치부와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죄가 드러날 때 위축되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삶을 내 던지고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죄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이종용 목사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책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이종용 목사님은 80년 대 말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너”라고 하는 가요로 8개월 동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은 미국 LA의 Cornerstone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회장을 지냈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목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학교를 다니던 때 부흥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장차 목사로 헌신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민망할까봐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으로 장난삼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자신을 목사로 불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이종용은 가요계에 들어가 열심히 연예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75년 연말 대상을 받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가수 이종용은 12월 3일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씨와 함께 대마초 사범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캄캄한 형무소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영화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집나간 탕자와 같던 가수 이종용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죄인이 되어 간수 앞에 발가벗고 몸 구석구석을 조사받아야 하는 치욕 속에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과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순간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책에서 이종용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찾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강박하기만 한 나를 강권적으로 구치소 안에 집어넣으시고 밑바닥으로 내리 꽂으신 후 나를 발견하게 하셨다. ‘너는 그런 모습의 아이이다. 네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로 산 것이 아니라 “‘너’를 노래 부르는 나”로 살았다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 교회를 다니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수 이종용은 구치소에서 한 사형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형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감되는 이종용 목사님에게 성경을 손에 쥐어 주며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 때, 가수 이종용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는 죽기 전, 가수 이종용에게 구리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주며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 뉘까지 일해 주십시오.”

“내 뉘까지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종용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렇게 많이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오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과 물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로 이종용 목사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 –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 오 –

이종용 목사님은 그 이후에 유명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서 예수님의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역을 맡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49회 공연을 하는 동안,

249회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249회 산상 수훈을 말하고,

249회 매를 맞았고,

249회 최후의 만찬을,

249회 십자가의 가상 칠언을 하고 죽었고,

249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2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면서 이 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헌신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자신의 헌신을 기억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로. . .

그리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한국 땅을 떠나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나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겨울아이’라는 노래로,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많이 불러주는 가요입니다. 그런데 이종용 목사님이 ‘겨울아이’를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며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Happy birthday to you

3) 소중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 .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의 삶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읽은 이종용 목사님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끝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많은 간증의 기회를 가졌던 목사님이 LA의 나성 영락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큰 교회에 초청을 받은 만큼, 얼마나 사례비를 받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돈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완전한 삶으로의 변화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비행기 기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

그래서 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한 번 만 기회를 주세요.”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하게 되었고, 걸어 나오는 순간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엔진 폭발한 저 비행기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종용 전도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주셨구나.”

(성지순례 가는 비행기 안에서 사무장이 찾아와 인사하며, ‘목사님 때문에 염려가 없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2절의 말씀,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살아나면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부활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죄의 짐을 다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묻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남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